

[ 바둑 ]



독일의 한국바둑 전도사 윤영선(왼쪽) 5단이 오는 9월 독일인 라스무스 부흐만씨와 결혼한다. /연합뉴스

“바둑 전도하다 사랑 만났어요”

윤영선 5단, 독일 팬과 29일 결혼

독일의 한국바둑 전도사 윤영선 5단(30)이 오는 29일 독일인 라스무스 부흐만(Rasmus Buchmann·26) 씨와 결혼한다.

프로여류국수전 4회 우승, 호작배 국제대회 우승 등 90년대 한국 여자바둑계의 간판스타로 활약했던 윤영선 5단이 독일로 건너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독일 제2의 도시 함부르크에 머물며 현지인들을 상대로 레슨, 공개강좌, 대회 심판, 바둑 서적 집필 등을 통해 왕성한 보급 활동을 해왔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3년 전 폴란드의 한 도시, 2001년 이후 윤영선 5단은 동료 기사들과 함께 매년 대회 참관차 유럽을 방문하고 있었고, 드디어 2004년 7월 폴란드 바둑 콩글레스에서 운명이 스쳤다.

이후 국경을 넘은 우정의 틈 사이로 파란 사랑의 싹이 돋고 있었다. 여행 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이메일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새록새록 키워갔다.

결혼을 앞둔 윤씨는 요즘 눈코를 뜰 사이가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바둑대회 및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놓은 데다 매주 함부르크 바둑클럽에서 강의를 해야 하고 그 밖에 개인·그룹레슨이 줄이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현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바둑책도 집필 중이다. 결혼식은 하노버의 교회에서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영암군, 도내 첫 아마 최강자전 창설

전남바둑 활성화·바둑테마 파크 조성 등 홍보 바차  
광주일보사 등 후원...8~9일 도지사배와 동시 열려

영암군 바둑협회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전국 아마 최강자 바둑대회를 창설했다.

특히 전국대회가 없는 전남 지역에서 전국아마 최강자 바둑대회가 창설됨으로써 전남바둑 인재 발굴과 바둑 문화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와 영암군이 주최하고 대한조선(주),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전국 아마최강자 바둑대회는 전국 아마추어 강자 64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8~9일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영암군 바둑협회는 전남바둑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고 바둑테마 파크가 조성되고 있는 영암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이 대회를 만들었다.

또 같은 기간 열리는 제3회 전남도지사배 바둑대회에는 전남 지역 예기가 1천여명이 참석, 자웅을 겨룬다. 부대행사로 는 국내 바둑계의 대표 기사인 조훈현 9단, 오규철 9단이 참석, 지역 예기가 40명을 대상으로 한 지도다면기가 열린다. 지도다면기 참가를 원할 경우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바둑 테마파크가 들어설 영암의 대축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도지사배 바둑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진행 방식은 총호선 6반이

며, 예선 조별리그를 통해 16강을 선발한 뒤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제한시간은 예선 각 10분 초읽기 30초 2회이며 본선의 경우 각 20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진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바둑인은 영암군 바둑협회와 전남바둑협회 시군지부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5일까지 영암군 바둑협회에 우편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464-8949. 참가비는 개인 1만원, 단체 3만원.

◇도지사배 부문별 참가자격  
▲일반부 갑조=1급~4급 이상인 자 ▲일반부 을조=5급 이상인 자 ▲여성부=만 20세 이상 여성 ▲단체부=직장 및 동호회 3인 1조 ▲학생부=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생 ▲초등고=초등 5~6학년 ▲초등 중=초등 3~4년 ▲초등저=초등 1~2학년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엠게임 마스터스 본선 진출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엠게임 제공>

엠게임 마스터스 본선 진출자 32명 확정

2007 엠게임 마스터스 본선 진출자들이 확정됐다.

최근 막을 내린 2007 엠게임 마스터스 챔피언십 예선결승에서 박영훈 9단, 박정상 9단, 목진석 9단, 이영규 6단, 강동운 7단 등 모두 32명이 본선 32강에 진출했다.

김영삼 7단, 양건 8단 등 노장들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며 본선에 합류했다. 초단으로는 정경호 초단을 꺾은 강유택 초단이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다.

여류기사는 조혜연 7단 외에 윤지희 2단과 고주연 2단 등 3명이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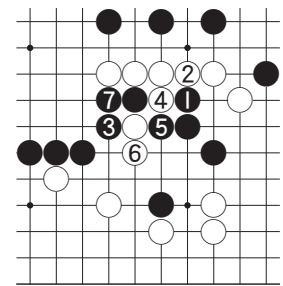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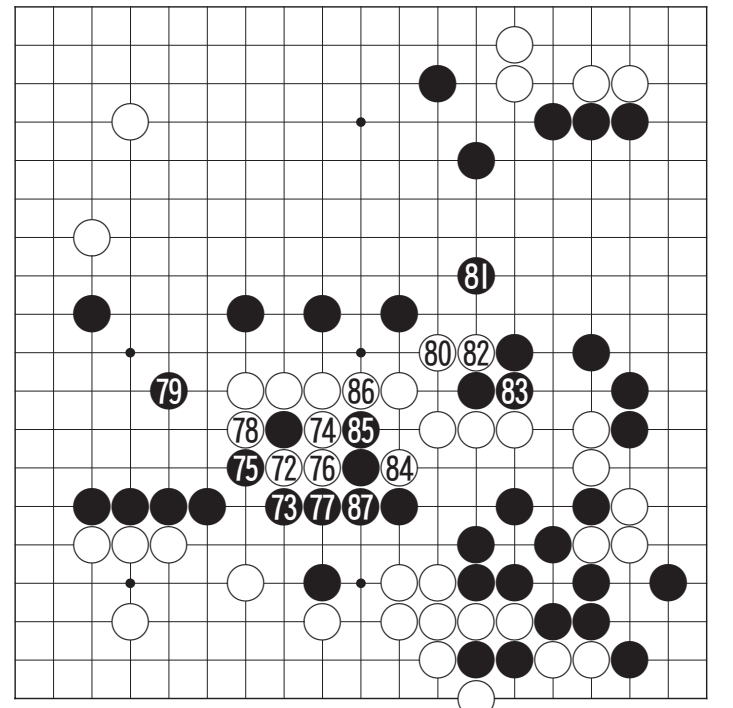
들의 숲을 뚫고 본선에 얼굴을 내밀게 됐다.

마스터스 챔피언십 본선은 오는 1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한국기원이 주관하고 엠게임 마스터스 위원회가 후원하는 2007 엠게임 마스터스 챔피언십의 총 상금규모는 1억5천만원이며, 우승상금은 2천50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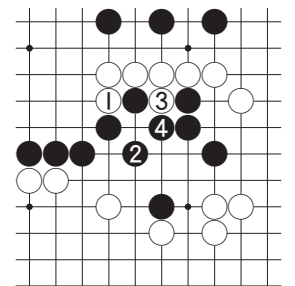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준결승 1국  
너무나 소중한 한 집  
5보(72~87)

白 이창준 5단 ((주)송림)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참고도 1>



<참고도 2>

한줄기 삶의 희망을 던져주었다. 백 78까지 천신만고 끝에 너무나도 소중한 ‘한집’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래서는 거의 살아난 분위기.

흑 73으로는 ‘참고도1’의 1을 선택하고 3으로 찢혀야 했다. 7까지 되면 한집도 없어서 백이 곤란하다. 또 백 4로 ‘참고도2’의 백 1로 두면 4까지 한집이 없어서 실전과 차이가 있다. 87까지 대마의 사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창준 5단은 ‘대마가 죽으려’는 심정으로 우하귀 흑 두점을 잡아버렸지만 막상 상대가 거칠게 나오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백 72로 붙인 것은 한집이라도 만들어 보려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수. 김영수 5단은 강판치의 소유자로 이제까지 강적들과의 대전에서 모두 케이오승을 거둔 바 있다. 지금도 마지막 한방이 필요한 시점에 자신감이 넘치던 탓인지 너무도 쉽게 73으로 붙여버리고 만다.

이 수가 불각의 한 수로 백에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온소진 “포기는 없다” 막판 뒷심

SK가스배 A조리그 김혜민 꺾고 2승2패



온소진 4단이 지난달 28일 스카이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에프로10절전 A조 리그

에서 김혜민 5단을 110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하고 리그 2승 2패를 기록했다.

초반 박속화 2단과 윤혁 5단에 게 일격을 당해 2패를 안은 온소진 4단은 진동규 3단과 김혜민 5단을 물리치고 리그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박속화 2단이 3승 1패를, 진동규 3단이 3승 2패로 리그를 마감하는 등 A조에 소속된 나머지 기사들이 3승 2패의 성적으로 리그를 마감하게 된다면 온소진 4단으로선 동률제대국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SK가스배는 각 리그에서 동률이 3인 이상 나게 될 경우 리그 서열순에 따라 1, 2위가 동률제대국을 벌이게 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中, 세계여류바둑대회 창설

원양부동산배, 내달 북경서 개막

또 하나의 세계여류바둑대회가 창설된다.

중국 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원양(遠洋)부동산배 세계 여자바둑대회가 오는 10월 북경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바둑협회 특별초청 시드 8명(중국 4명, 한국 2명, 일본 2명)과 중국위기협회 및 각국 기원의 선발을 거친 16명이 출전한다.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대회의 우승상금은 1천300만원(준우승 390만원).

이번 대회에서는 이색적인 상도 수여된다. 주최측은 출전 베스트 드레서상과 베스트 애정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목진석·이세돌, 원익배 십단전 순항

목진석 9단이 지난달 27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에서 김환수 2단을 꺾고 2회전을 통과했다.

목 9단은 이번 승리로 71승을 달성했으며 국수전에서 이세돌 9단에 패한 뒤 내리 9연승을 기록 중이다.

같은 날 본선 첫 대국을 펼친 이세돌 9단은 진시영 2단을 누르고 상급

하게 스타트를 끊었다. 이 9단의 다음 상대는 박영훈 9단. 둘은 올해 처음으로 만난다.

이 9단이 역대 상대전적에서 9승 7패로 앞서고 있지만 지난 2004년 이후 전적은 3승 3패로 호각세다.

원익배 십단전의 제한시간은 10분 40초 초읽기 3회이며 둘을 맞춘 사람이 흑, 백 선택권을 가진다.

A collection of various real estate advertisements. The ads include contact information for agencies like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nd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and details about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Some ads mention specific locations like '신원동' and '신원동 111'.